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19.11.18)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대한강재 부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서곡(序曲)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국내) 유통 가격 약세 지속 반면 수입 오퍼가 상승 전환
(중국) 제고 조정 진행 및 생산 제한으로 철강재 가격 본격 상승 전환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중국 철강재 가격 상승 전환 요인 분석 및 전망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국내 철강 55개사 부채비율 78.5% 전년비 3.0%p 낮아져, 절반(27사)는 증가
5. 금주의 자료 : 1) SSC, 철강 가격 약세로 실적 둔화 예상 (출처 : 하나금융포커스, 19.11.11)
2) 2020년 중국 경제 이슈와 전망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9.11.1)
3) 2020년 세계 경제 전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11.11)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대한강재 부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서곡(序曲)이다”

지난 8일 대한강재의 부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철강 유통가공업계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1985년 창업 후 동국제강 대리점으로 냉연판재류 가공유통 분야에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왔던 대한강재의 부도는 현재 상당수 철강 유통가공 업체들의 어려움과 비슷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소 무리한 공장 이전과 가공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감소가 자금 부담으로 이어졌다. 가격조차도 판매를 위해서는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 생존을 위한 투자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대한강재의 자본금은 47억원인데 부채비율은 무려 1600%를 넘어섰다. 그만큼 2004년 투자 이후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지 58개 스틸서비스센터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에는 1.3%로 폭 떨어졌다. 올해도 작년보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부채비율은 평균 133.6%로 최악의 수준은 아니지만 적정수준인 69%를 넘는 기업은 40개사로 2/3를 넘고 있다. 특히 200% 이상인 업체가 23개사에 이르고 있다. 단기차입금은 1조9635억원으로 1개 기업 평균 33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매출액은 담보 상태에 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평균 영업이익은 27억원 정도에 그쳤다. 단기차입금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조건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일부 대형 SSC와 자금력이 우수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업체가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철강 제조업체들의 전초기지이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SSC의 부실화는 말 그대로 제조업체들에게는 ‘순망치한(脣亡齒寒)’과 같은 일이다.

앞으로도 국내 건설 및 제조업의 동반 부진으로 철강재 수요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저가 수입재의 시장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스틸트레이드’와 같이 전자상거래 확대와 같이 수요가와 제조업체의 직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국내 철강 유통가공업체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야한다.

결국 철강 유통가공 시장은 유통산업화 과정에서 영세업체의 구조조정과 함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구조재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 철강 유통가공업계의 공급사를 초월한 통합을 통한 대형화, 하공정 진출 등을 통한 전문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철강 유통 부문이 별도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자오강 등 플랫폼 방식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현대화시키면서 지속 생존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유통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 유통 비중에 있어서도 중국 50%와 일본 25%의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과 취급량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방식의 생존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유통업계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그리고 하공정 진출을 통한 전문화 전략 실행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업계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원료탄…수급 · 철강재 가격 요인 복합, 철광석 상승 전환 · 원료탄 강보합

철스크랩(고철)…국제 가격 상승 추세 본격화 · 국내 상승 국면 진입 ‘우세’

철강재…(국내) 유통 가격 약세 지속 반면 수입 오퍼가 상승 전환

(중국) 재고 조정 진행 및 생산 제한으로 가격 상승 전환

◆ 철광석·원료탄 (철광석 수입가 상승 전환…원료탄 하락세에서 강보합)

1. 중국 철광석 수입가격 상승 전환

- 15일 기준 Fe 62% 84.6달러 기록
- 일주일 전 8일 대비 7.1%(5.6달러)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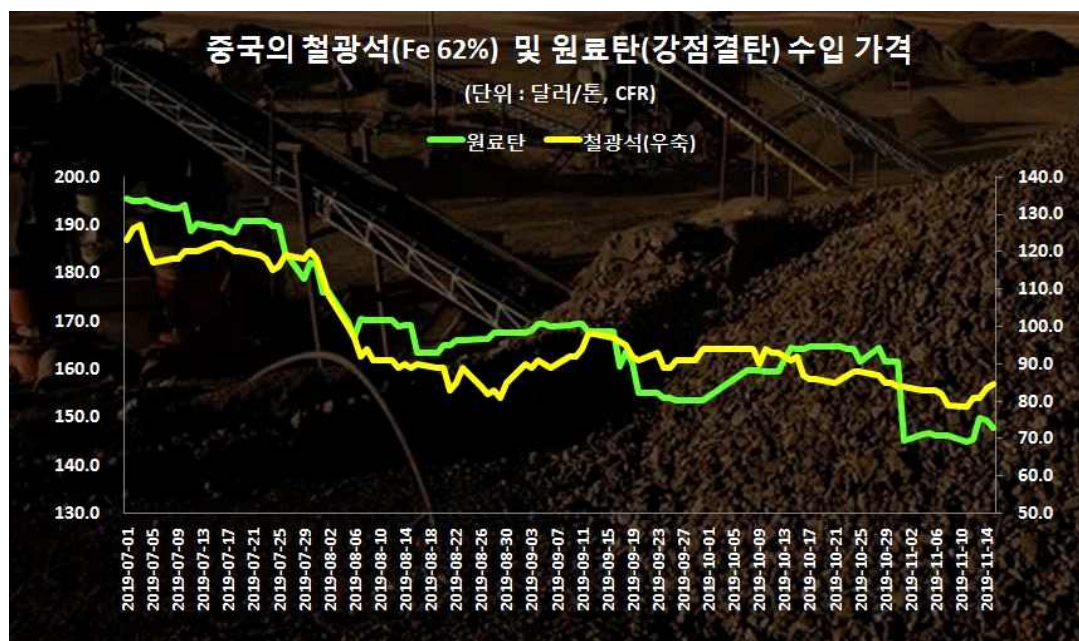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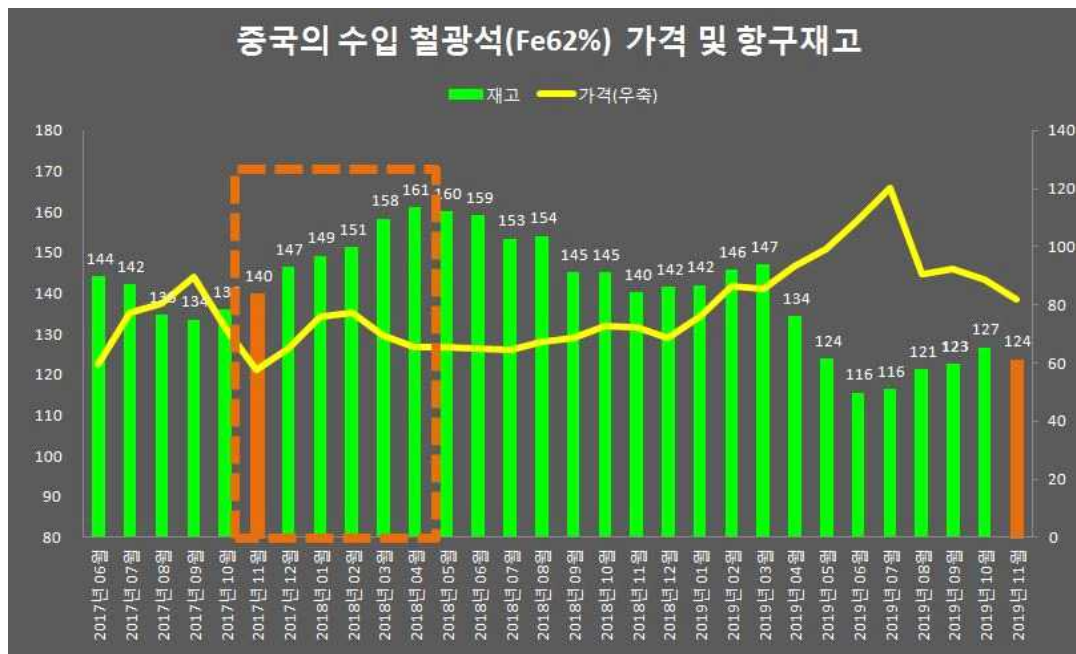
2. 상승 배경은 타이트한 재고상황 + 철강가격 상승 등 개선 기대감

- 15일 기준 45개 항구 재고 1억2400만톤
- 작년 11월 1억4000만톤보다 1600만톤 적음
- 작년의 경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 이듬해 성수기인 4월까지 급증세
- 철강재 가격상승 기대감과 함께 철광석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

**** 아래 그래프(철광석 가격 및 항구재고) 참고 ****

3. 원료탄(강점결탄) 하락세에서 강보합

- 중국 수입 : 15일 기준 CFR 147.8달러 8일 대비 1.2%(1.7달러) 상승
- 호주 수출 : 15일 기준 FOB 136.0달러 8일 대비 1.6%(2.2달러) 상승



◆ 철스크랩 : 상승 국면 본격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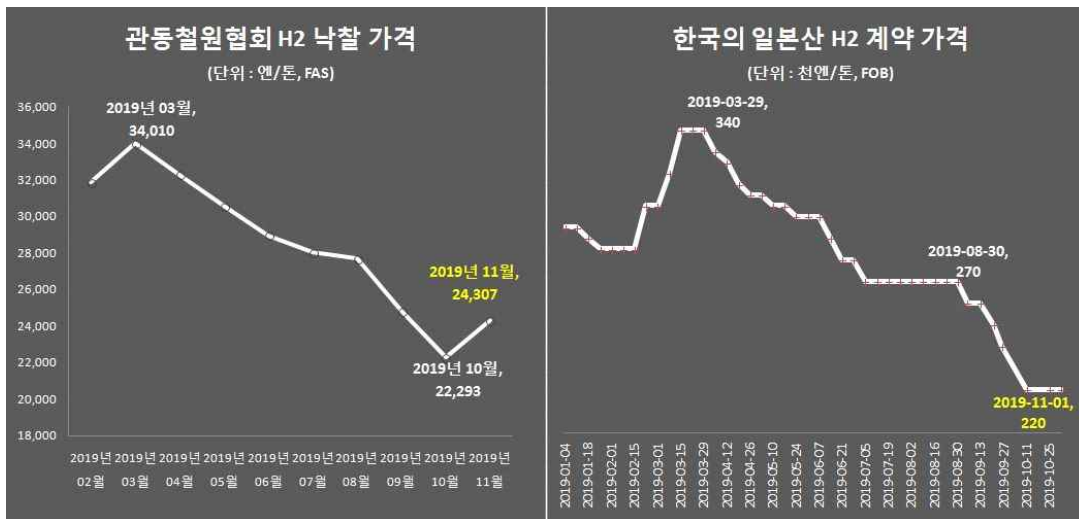
1. 미국 대형모선

- 동남아향 HMS No.1&2(8:2) 기준 CFR 톤당 285달러까지 성약
- 전주 280달러 돌파 이후 5달러 추가 상승
- 방글라데시 슈레드 등급 295달러 성약
- 미국 동부지역 터키향 수출 270달러 이상 오픈. 터키 수입 260달러대. 상승관측

※ 현대제철 동국제강 10월 초 240달러대 계약 이후 40~50달러 급등. 미국 대형 공급사들은 10월부터 반등세를 탄 이후 동남아 터키 등에 꾸준히 계약을 진행함. 공급상황은 넉넉지 않은 것으로 파악. 추후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 단, 터키의 경우 철근 등 제품 시장 부진시 가격은 현재가 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있음.

2. 일본 동경제철의 인상. 글로벌 상승세 인정

- 동경제철은 이달 14일부터 전공장의 구매 가격을 톤당 500~1000엔 인상
- 동경제철 인상은 3월 이후 8개월 만
- 앞서 글로벌 상승 및 일본 수출 가격 상승이 나타났음
- 관동철원협회가 12일 실시한 수출 입찰에서 H2는 FAS 톤당 평균 2만4066엔
- 전월보다 2014엔 급등. FOB로는 2만5000엔 이상. 최고 낙찰 가격은 2만4460엔 (현대제철 이달 초 2만2000엔서 3000엔 급등)



3. 한국 시장도 상승국면 진입 관측 우세

- 대한제강이 13일 1만원 인하를 16일에 철회한 것이 상징적 의미
 - 시중 물동량 감소 및 9월부터 장기간 큰 폭의 인하에 대한 저항감 높은 상황
 - 최소 2~3만원 상승해야 물량이 움직일 것이란 의견이 많음
 - 특히 국내 제강사 내년 1월 수입계약량이 전혀 없음(현대제철 1월적 대형모선 1카고 제외)
 - 현재 미국 대형모선 계약에 나서면 1월적이 가능함. 하지만 공급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
- 제강사들이 이미 높아진 수입고철 계약에 나설 경우, 시장에 상승세를 인정하는 데 대해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의견. 또 연말 인사시즌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단, 현대제철은 일본산 기계약분 미이행 물량이 1월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
- 제강사들은 국내 고철 가격에 대해 추가적인 인하 예고 없이 시장상황 및 타 제강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

◆ 국내 철강 시장 : 유통 가격 약세 지속

1. 한국향 오퍼 (CFR 기준) : '상승'

*. 본계강철 12월 선적분

- 열연코일 : 468달러 5달러 상승 - 산세코일 : 508달러 5달러 상승
 - 냉연코일 : 528달러 15달러 상승 - 아연도코일 : 593달러 15달러 상승
- (*. 달러환율 : 1164.10원)

- 사강강철 철근 10mm 480달러
- 용강강철 철근 10mm 460달러
- 성차이 앵글 50~100mm 443달러
- 잉커우강철 후판 452달러
- 당산강철 후판 475달러

2. 국내 유통가격 약세 지속

1. 열연

- 포스코산 대응재 열연 톤당 60만원(현금기준). 59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산 열연 가격은 대응재보다 2만원이 낮음. 추가 하락 가능성
- 현대제철 열연 정품 62만원.

2. 후판

- 포스코산 대응재 톤당 60만원
- 현대제철 CS(포스코 대응재 성격)산 61만원

3. 철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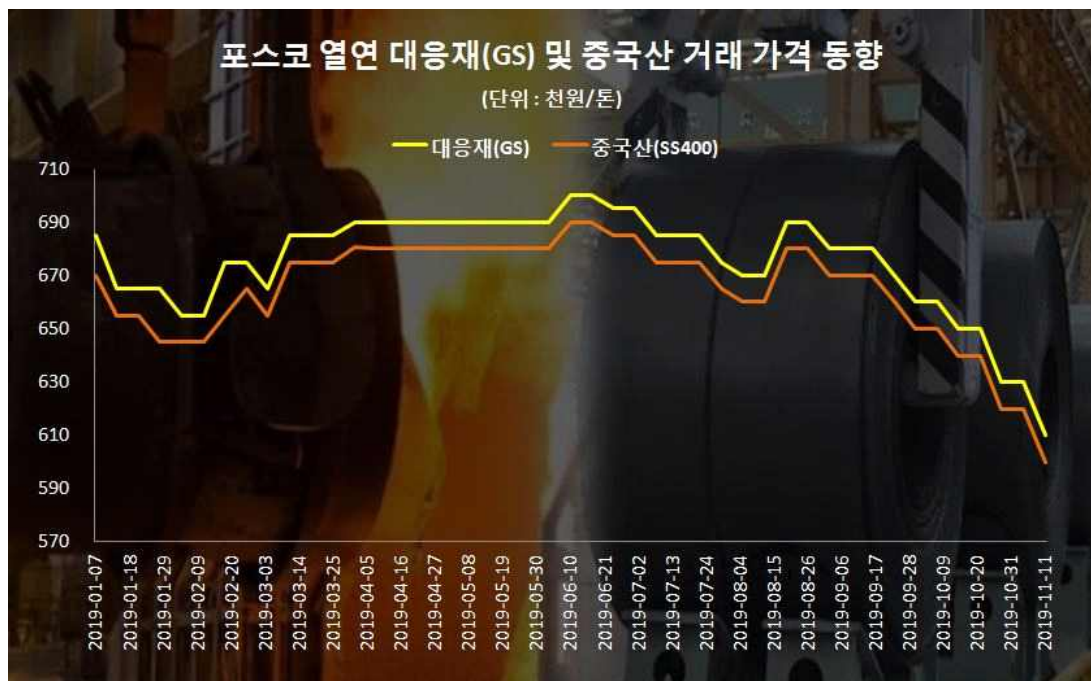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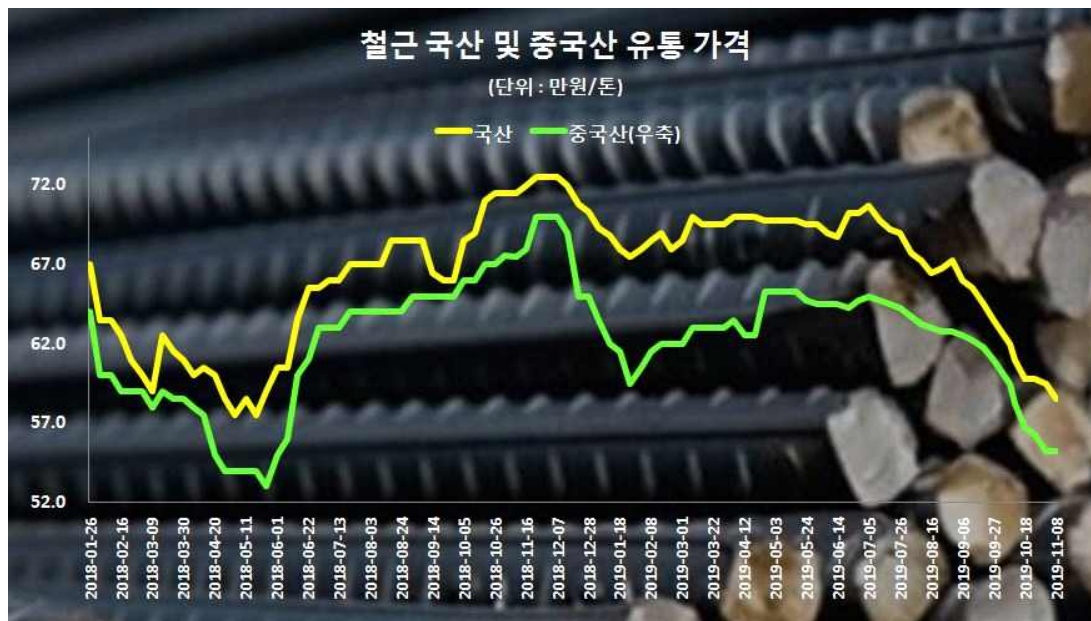
- 국산 : 지난주 58.5만원
 - 중국산 : 55만원에서 55.5만원
- ** 추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한 상황

4. 앵글 채널

- 국산 : 75~76만원
 - 수입산 앵글 61~62만원 수입산 채널 63~64만원
- ** 철근 형강과 달리 보합 유지

5. 형강

- 국산 : 74~75만원
 - 포스코 베트남 : 72만원
 - 바레인/일본 : 70만원
 - 중국산 : 68만원
- ** 철근과 같이 약세기조가 짙음.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11.14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FOB)	현물	USD/bbl	62.47	▲0.99	1.61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CIF)	현물	USD/ton	478.33	▼32.29	-6.14	월간
전력용 연료탄 (6,300kcal/kg)	호주뉴캐슬(FOB)	현물	USD/ton	63.02	▼1.08	-0.13	주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도매가)	현물	KRW/ton	295,000	▼40,000	-11.94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수입가 CFR)	현물	USD/ton	83.42	▲2.39	2.95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FOB)	현물	USD/ton	134.5	▼1.88	-0.65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835.0	▲12	0.21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756.0	▼12	-0.68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5,355	▼175	-1.13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2,458.0	▼24	-0.97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2,023.5	▼14.5	-0.66	일간

<LME> 협상 기대 부상, 그러나 아직 무대의 주역은 불확실성

15일 美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이 무역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양국이 무역합의에 근접하고 있으며(getting close to an agreement) 대화는 매우 건설적(very constructive)’이라고 발언하면서, 무역협상 낙관론이 재차 힘을 받는 분위기. 그에 따라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국 증시들 역시 대체로 강세 마감. 한편, 오늘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소매판매를 제외하고 대체로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

14일까지 5일 연속 하락했던 전기동은 오늘 美 NEC 위원장의 코멘트에 힘입으면서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기술적으로는, \$5,810~\$5,830 구간에서 50일 및 100일 이동평균이 각각 위치하고 있어 지지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근 투기세력의 未청산 포지션닝 상황은 중립으로 파악돼.

한편, 알루미늄 역시 전약후강 움직임 끝에 소폭 반등 마감. LME 재고는 오늘 44,200톤 증가한 1,065,175톤으로 집계돼 지난 6월 이후 최대 규모.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전망은 근접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양국의 구조적 견해차이(‘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美 상무장관 월버 로스)는 내년 11월 美 대선까지 최종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펀더멘털 차원으로도 강세적 요인은 찾기 어려운 전기동과 알루미늄은 당분간 약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금 가격은 무역협상 기대감에 따른 안전자산 투자수요 감소로 장중 내내 전일 대비 소폭 약세 흐름. 주간 단위로는, 지난주의 비교적 큰 폭 하락을 감안할 때 이번 주에 추가하락은 방어하는 모습. 차트상으로는, 우선은 현물가격 기준으로 \$1,470대에 재차 안착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간다면 상승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첫 신호로 볼 수 있겠으나, 안전자산 회피 분위기가 대거 득세할 경우에는 \$1,450 하향돌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MARKET NEWS>

中 10월 전기동 생산 월별 사상 최고치 (Reuters)

현지 통계당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전기동(refined copper)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한 868,000톤으로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한편, 기타 알루미늄/아연/납의 경우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6%/8.3%/16.5% 증가한 5.97M톤/548,000톤/538,000톤으로 집계돼.

印尼 10월 니켈광 및 니켈제품 수출액 전월 대비 10% 증가 (Reuters)

현지 통계당국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0월 니켈광 및 니켈제품 수출(금액)이 전월 대비 10% 증가한 \$97.4M로 집계됐다고. 중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8.85M톤으로 나타나 전월의 8.79M톤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 한편,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규모(중량)는 73.2M톤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中상해기화교역소 전기동 주간 재고 8.9% 감소 (Reuters)

거래소 주간 집계에 따르면, 중국 상해기화교역소(SHFE)의 전기동 재고가 전주 대비 8.9% 감소한 135,513톤으로 나타나. 한편, 알루미늄/아연/납/니켈/주석의 경우에는 +1.8%/-10.5%/+33.0%/+17.7%/-13.3% 증가하거나 감소한 281,635톤/57,121톤/38,384톤/36,277톤/3,828톤으로 집계돼

LME 비철금속 OFFICIAL Prices

(단위: USD/Metric Tons)

	금일				금일평균		전월평균	
	CASH (현물)		3M (3개월)		CASH	3M	CASH	3M
	BID	ASK	BID	ASK				
Copper	5,811.50	5,812.00	5,830.00	5,835.00	5,863.14	5,884.41	5,742.89	5,772.50
Aluminum	1,740.00	1,741.00	1,743.00	1,745.00	1,787.68	1,785.55	1,718.83	1,727.57
Zinc	2,426.00	2,427.00	2,385.00	2,385.50	2,522.41	2,473.23	2,445.59	2,411.72
Lead	2,003.00	2,004.00	2,008.00	2,009.00	2,102.45	2,098.68	2,184.30	2,176.54
Nickel	14,980.00	14,990.00	14,975.00	15,025.00	15,960.91	15,950.00	17,113.48	17,025.65
Tin	16,225.00	16,275.00	16,225.00	16,275.00	16,459.55	16,482.73	16,603.04	16,627.39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Evening Valuation (종가)

(단위: USD/Metric Tons)

	CASH	3MTHS	NOV19	DEC19	JAN20	FEB20	MAR20	APR20
Copper	5,825.50	5,849.00	5,826.25	5,836.75	5,844.25	5,850.00	5,854.50	5,859.50
Aluminum	1,759.00	1,755.00	1,759.50	1,763.00	1,749.50	1,756.00	1,762.75	1,767.25
Zinc	2,410.50	2,380.00	2,409.50	2,398.50	2,388.50	2,378.50	2,369.50	2,364.00
Lead	1,983.25	1,997.00	1,983.25	1,990.25	1,994.75	1,997.75	1,999.25	2,000.00
Nickel	14,967.00	14,975.00	14,968.00	14,976.00	14,983.00	14,979.00	14,979.00	14,977.00
Tin	16,073.50	16,100.00	16,075.00	16,095.00	16,105.00	16,098.00	16,083.00	16,071.0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재고

(단위: Metric Tons)

	금일 재고동향				재고 상세내역			
	전일 재고	입고 (IN)	출고 (OUT)	금일 재고	전일 대비	ON WRT	CXL WRT	CXL Chg
Copper	221,725	7,075	4,025	224,775	3,050	186,525	38,250	-3,825
Aluminum	1,020,975	46,575	2,375	1,065,175	44,200	916,825	148,350	-2,375
Zinc	52,600	0	50	52,550	-50	34,475	18,075	-50
Lead	67,050	0	200	66,850	-200	63,550	3,300	-200
Nickel	64,176	396	6	64,566	390	38,022	26,544	288
Tin	6,640	35	35	6,640	0	5,715	925	-35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 가격 상승 국면 전환 및 요인

1. 중국 철강 가격 본격 상승 전환

- 상해 내수 가격 : 15일 기준 열연 3710위안, 철근 3960위안
→ 8일 대비 열연 90위안 상승, 철근 170위안 상승

- ※ 상승장의 특징인 철근 가격이 열연을 크게 웃도는 현상
 - 철근은 열연을 250위안 상회. 10월 말 격차가 100위안을 돌파한 이후 계속 확대됨
 - 작년 11월 겨울철감산 및 상승국면에서의 격차는 630위안까지 벌어짐
- 올해 여름 8월부터 9월 하락장은 열연이 철근을 상회함
- 상해 선물 시장
15일 기준 내년 1월 인도분 철근 3545위안, 열연 3484위안
→ 8일 대비 철근 133위안, 열연 130위안 상승

**** 아래 중국 상해 열연 및 철근 내수 가격 및 선물시장 거래 가격 참고**



2. 중국의 재고조정

중국 유통재고(마이스틸 집계기준) 15일 기준

- 철근 469만톤 전주 8일 대비 40만톤 감소...고점(8/9) 대비 455만톤 감소
- 열연 187만톤 전주 8일 대비 13만톤 감소...고점(8/9) 대비 74만톤 감소
- 선재 118만톤 전주 8일 대비 12만톤 감소...고점(8/9) 대비 56만톤 감소
- 중후판 104만톤 전주 8일 대비 1만톤 증가...고점(8/9) 대비 5만톤 감소



→ 올해 1월 초 철근기준 490만톤보다 적음. 연말까지 재고조정 및 생산제한(겨울철감산)은 내년 초 철강 가격 강세를 이끌 배경으로 지목됨

3. 중국의 생산 감소 수급균형

- 겨울철감산에 따른 생산감소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10월 조강생산량 8152만톤...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아래 그래프 참고)
- 전년치 실적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 (** 작년 10월 이후로는 생산이 급격히 감소)

- 중국의 생산량은 5월 8909만톤에서 8월(8725만톤)을 제외하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내년 3월말까지 생산은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통상 1,2월은 연휴 등으로 생산이 연중 최저치로 나타남

→ 현재 유통재고는 많지 않고, 생산은 제한된 상황. 타이트한 수급으로 강세 견인

※ 중국 내수 수요는 건조한 것으로 평가.

수출은 500만톤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유통재고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국내 철강 55개사 부채비율 78.5% 전년비 3.0%p 낮아져, But 절반(27사)은 부채비율 증가
부채비율 200% 이상 위험군 4개사 해당
- 동국제강 세아제강 KG동부제철 1~3분기 실적 호전...소재인 열연강판 구매 다변화 공통점
- 동국제강 KG동부제철 가전용 컬러강판 톤당 2만원 인상, 이달 출하 분부터
- 사외이사 임기 제한, 철강업계 전체 30% 대상...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
- 포스코 '오픈마켓' 본격 진출...포스코인터내셔널 '스틸트레이드' 11월초 '오픈'
-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 브랜드 '이노빌트' 론칭...현대제철 내마모강 '웨어렉스' 신규 개발
- 포스코-고려용접봉, 공동 개발 용접솔루션 북미국제가공용접전시회에서 '호평'
- 해외 : 중국 바오산 도요타에 전기강판 최초 공급...2009년 포스코 이어 두 번째,
중국 6대 철강사 비중 30% 육박 대형화 급진전...바오우 마강 합병으로 실질적 세계 1위
호주 BHP그룹 새 CEO에 친일본계 마이크 헨리 선임, 내년 1월 취임 예정
일본 최대 철강유통단지 우라야스(浦安) 10월 실적...이익 악화 56% 과반 지속, 호전 21% 불과
베트남 포미나스틸 소형 고로 내년 4월 'Hot Run'...FHS, HPG 이어 3번째 민영 고로 운영사
일본 고로 3사 2019년 예상이익 하향 조정...전기로 12사 중 경상이익 9개사 증가
아세로미탈, 일바(ILVA) 인수 철회로 이탈리아 정부와 대립 '격화'
중국 징예그룹, 영국 브리티시스틸 인수

2) 수요/연관 뉴스

- STX조선 등 중형조선사, 수주 부진에도 ‘흑자’...환율 효과 + 수익성 위주 수주
- 10월 자동차 생산·수출·내수 ‘트리플 감소’
- 대우조선해양, 3분기 영업손실 2563억원...7분기 만에 적자 전환
- EU 집행위,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심사 개시
- HSG重, 큐리어스와 손잡고 성동조선해양 인수 참여
- 8월 공작기계, 내수수주 증가에도 부진 여전... 정밀기계·조선·항공 업종서 크게 감소
- 한국 조선, 10월 수주 129만CGT 중국 압도적 제치고 1위...누계도 1위
-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업계 인력 감축 7만명 넘어...리먼사태 2009년 10만명 이후 최대

3) 경제/산업 뉴스

- 15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66.6원 (전일 대비 ↓3.1원) 원/100엔 1074.37원 (↓1.66원)
-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0%로 하향 조정...내년 2.3%로 하향 "
- 정부 경제동향 진단서 “성장 제약” 평가
- 10월 취업자 41만9000명 증가...고용률 61.7%로 23년만에 최고
- 제조업 취업자 8천명 감소한 357만명...자동차 줄고 조선업 늘어
- 무디스 “내년 세계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 KIEP, 내년 세계경제 회복세 3.2% 전망
- 미 트럼프대통령, “중국과 합의 임박...결렬시 대규모 관세 부과” 경고
- 미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전월대비 0.4%(계절조정치) 상승
- 일본, '19.3분기 성장률 +0.2%(전기비 연율)로 둔화
- 주요 경제지표 (11. 15.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10말	11.13	11.14	11.15	전일비	18말비
₩/US\$	1,070.50	1,115.70	1,163.40	1,167.80	1,169.70	1,166.60	△0.27	4.56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163.30	1,167.10	1,169.20	1,166.50	△0.23	4.63
₩/CNY	163.9	162.79	165.43	166.41	166.57	166.46	△0.07	2.25
₩/Y100	949.28	1,008.86	1,070.48	1,070.88	1,076.18	1,074.51	△0.16	6.51
Y/US\$	112.77	110.59	108.68	109.05	108.69	108.57	△0.11	△1.83
US\$/EUR	1.1927	1.1455	1.1158	1.1011	1.0995	1.1022	0.25	△3.78
CNY/US\$	6.5426	6.8522	7.041	7.0156	7.0193	7.0111	△0.12	2.32

* '18년 평균 환율: (₩/US\$)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19.1.1~현재): (₩/US\$) 1164.8원, (₩/¥100) 1069.7원, 3시 30분 기준

[유가]	'17말	'18말	'19.10말	11.12	11.13	11.14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61.1	62.16	61.48	62.47	1.61%	18.18%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4.18	56.8	57.12	56.77	△0.61%	25.24%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19.1.1~현재) (Dubai): 63.46\$, (WTI 선물): 56.75\$

[주가]	'17말	'18말	'19.10말	11.13	11.14	11.15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2,083.48	2,122.45	2,139.23	2,162.18	1.07%	5.94%
-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50,515	57,439	53,767	60,802	13.08%	-
KOSDAQ	798.42	675.65	658.52	661.85	663.31	668.51	0.78%	△1.06%
외국인순매수(억원,기간중)	1,409	2,730	637	△753	△2,145	△463	△78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SSC, 철강 가격 약세로 실적 둔화 예상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19.11.11)

- 최근 미중 무역분쟁, 산업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철강 유통가공업체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음.
- 2020년에도 저가 수입재 물량 확대, 국내 건설 및 제조업의 동반 부진으로 수요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철강 유통업체의 부침이 지소기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및 건설 경기 부진으로 냉연 및 봉형강 SSC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며, 중장기적으로 유통시장의 구조조정과 함께 대형화, 전문화 상위업체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됨.

* 바로가기 : <http://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54&pg=1&no=34202>

2) 2020년 중국 경제 이슈와 전망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9-36호, 19.11.1)

- 2020년 중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IMF 10월 발표 5.8%, OECD 9월 발표 5.7%)
- 이에 2020년도 중국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코자 함.

*. 바로가기 : <https://hri.co.kr:442/storage/newReList.asp>

3)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11.11)

- 2020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전망치 대비 0.3%p 높은 3.2%의 성장을 전망.
-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각 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내외 갈등으로 인해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 이행여부는 불확실하며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

*. 바로가기 :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205226